

## 월경취업 노동이동과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 -유럽연합 Grande Région을 사례로-

문남철\*

### Cross-border Flow of Workers and Regulation of Border Labor Markets: Focus on EU's Grande Région

Nam-Cheol Moon\*

**요약 :**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에서 접경지역간 월경취업 노동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 시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의 접경지역인 Grande Région에서 월경취업 노동에 의한 노동시장 조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한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은 오래 전부터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문화·역사적 배경, 비슷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조절의 규범과 실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 노동시장에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대응의 지역적 차이로 발생하는 양적·질적 노동력의 잉여와 부족의 문제는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해 조절되었다. 셋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접경지역간 분절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시간직 및 임시직의 유연한 고용형태에 의해 조절되었다. 다섯째, 월경취업 노동은 거주지를 인접국가로 이전하고 기존의 노동지역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비정형적인 월경취업 노동이 증가하였다.

**주요어 :** 월경취업 노동이동,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 Grande Région, EU

**Abstract :** The cross-border flow of workers in EU having the freedom of labor mobility and residence plays a role in the border labor markets as a structural factor of regulation. The regulation role of the cross-border flow of workers on the Grand Région, which is the border among the France-Belgium-Luxembourg-Germany, is as follows.

First, the cross-border flow of workers regulates the regional surplus and lack of labor in quantity and quality. Second, the border labor markets are regulated by the regionally segmented supply and demand of labor and are modulated by the flexible employment like a part-time and temporary employment. Third, the residence of the cross-border workers concentrates on the adjacent regions to the border. And the atypical cross-border workers, who have their residence in the neighboring country but works in the existing country, are rising rapidly.

**Key Words :** Cross-border Flow of Workers, Regulation of Border Labor Market, Grande Région, EU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5353)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nc83@hanmail.net)

## 1. 서론

경제의 세계화 및 국경의 개방화와 더불어 국가간 노동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가간 노동이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임금유지를 위해 노동의 자유로운 유입을 제한하고 단기 노동계약에 의한 이주노동의 유입만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창설 초기(EEC, 1957년)부터 상품과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불어 노동이동의 자유화를 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해 왔다. 그리고 1990년대 마스트리히트 조약(1991년)과 쉥겐협정 실행 발효(1995년), 암스테르담 조약(1998년) 등으로 회원국간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의 완전한 자유가 실현됨<sup>1)</sup>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회원국간 노동이동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유사한 문화·역사적 배경과 비슷한 산업발달 과정을 지닌 접경지역에서는 거주지의 이전 없이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국경을 통과하여 노동장소와 거주장소를 왕복하는 월경취업 노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월경취업 노동은 접경지역 노동시장에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적응의 지역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적·질적 노동력의 잉여와 부족의 문제를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월경취업 노동은 숙련된 전문노동력의 높은 유출에 따른 지역의 경쟁력 약화와 거주지의 지리적 집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 이동거리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장기여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을 야기하였다.

월경취업 노동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월경취업 노동의 증가와 더불어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월경취업 노동참여의 동기와 지역간 노동이동의 특성(Wagnon, 1995; Belkacem *et al.*, 2006), 월경취업 노동자의 행태와 계약관계(Mathias,

2003; Clement, 2004), 월경취업 노동으로 인한 거주지역에서의 질적 노동력의 고갈문제(De Gijssels and Janssen, 2000)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월경취업 노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접경지역의 경제적 교류 및 통합을 분석한 연구(문남철, 2002; 이현주, 2002; 김부성, 2006)에서 접경지역간 상호작용과 상호통합의 한 수단으로서 월경취업 노동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한간의 국경기능이 소멸되고 남·북한의 접경지역에서 노동이동 및 거주이동이 자유로울 때, 접경지역에서 나타날 월경취업 노동이동과 노동시장의 조절요소로서 월경취업 노동의 역할과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회원국간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의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월경취업 노동이동과 접경지역 노동시장의 조절요소로서 월경취업 노동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세부적인 분석내용으로는 우선, 월경취업 노동의 개념 및 등장배경과 사례지역의 월경취업 노동발달의 문화·역사·지리적 배경 및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접경지역의 월경취업 노동은 지역간 경제적 불균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문화·역사적 배경, 비슷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규범과 실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례지역의 월경취업 노동의 지역간 이동과 접경지역 노동시장의 조절요소로서 월경취업 노동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즉 접경지역에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적응의 지역적 차이로 발생된 양적·질적 노동의 잉여와 부족문제가 월경취업 노동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회원국간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접경지역에서 월경취업 노동의 유형과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부문에서 접경지역 노동시장의 조절요소로서 월경취업 노동과 관련

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내부 접경지역들 중에서 월경취업 노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Grand Région을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은 독일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4개 국가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독일의 자를란트(Saarland)와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벨기에 왈롱(Wallon), 프랑스 로렌(Lorraine), 룩셈부르크(Luxembourg)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월경취업 노동자 수는 2008년 현재 약 20만 명으로 유럽연합 15개국<sup>2)</sup> 월경취업 노동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연구방법은 기존에 발행된 월경취업 노동 관련 연구보고서와 논문, 학술서적 그리고 Grand Région 인터넷 홈 페이지([www.granderegion.net](http://www.granderegion.net))에서 월경취업 노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한 후 지도화 및 도표화하여 기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미래에 남·북한간 접경지역에서 노동이동 및 거주이동이 자유로울 때, 남·북한간 접경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월경취업 노동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월경취업 노동은 거주지를 노동국가로 옮긴 이주노동과는 달리 매일 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국경을 통과하여 거주장소와 노동장소를 왕복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월경취업 노동의 공간적 이동은 국가간 노동이동과 지역간 노동이동의 복합적인 성격과 특징을 갖는다. 월경취업 노동의 공간적 이동에 관한 이론은 일반적인 노동의 공간적 이동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이론적 견해가 존재한다.

첫 번째 견해는 신고전 경제학적 관점으로 월경취업 노동은 일반적인 노동의 공간적 이동과 마찬가지로 이윤과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노동자가 국경을 넘어 인접지역에서 노동할 때 얻게 되는 이윤과 효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동질적인 노동력의 균등한 분포와 동질적인 정보접근의 균등한 기회, 동일한 이동비용 등 지리적 동질성과 균등성의 가정에 기초하며, 노동시장을 구조화하는 제도적 장치나 문화적 규범 그리고 역사적 배경, 개인적인 행태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의 공간적 이동은 지역간 경제발전의 수준 차이에 의한 임금수준과 고용기회의 격차에 의해 발생하고, 노동이동의 규모는 임금수준과 고용기회의 격차에 비례한다. 또한 노동이동은 지역간 임금수준과 실업률이 같아질 때까지 지속된다(Harris and Todaro, 1970).

두 번째 견해는 노동의 공간적 이동에 대한 신고전 경제학적 관점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대한 비판에 바탕을 둔다. 우선, 노동력은 신고전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평균적인 자질을 갖춘 노동력이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일자리와 노동력은 공간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의 공간적 이동은 노동이윤의 극대화와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 저임금 및 고실업 지역에서 고임금과 저실업의 지역으로 이동될 뿐만 아니라, 숙련된 전문직 노동은 자신의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적자본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Massey *et al.*, 1993) 자신의 지식과 능력,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다(De Gijssel and Janssen, 2000). 노동시장도 동질적이지 않고 기술능력과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에서 높은 임금과 양호한 노동여건, 안정된 고용조건을 갖춘 1차 노동시장과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여건, 매우 불안정한 고용의 2차 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집약적인 1차 노동시장은 내국인 노동

자에 의해 충당되고 노동집약적인 2차 노동시장은 인접국가에서 유입되는 단순노동력에 의해 충당된다(Harrison and Sum, 1979). 그리고 노동의 공간적 이동은 단지 지역간 임금수준과 취업기회의 차이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적 접근성과 세제상의 차이와 노후에 대한 보장, 고향에의 향수 등 심리적·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노동의 공간적 이동을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임금격차와 고용기회의 차이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Wissen and Visser, 1998; Tassinopoulos and Werner, 1998). 특히 접경지역에서 월경취업 노동의 공간적 이동은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에 의한 임금격차와 고용기회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리적 요인, 문화와 역사적 관습, 심리적인 요인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접경지역의 노동이동은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온 노동이동의 지역적 연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국경의 존재는 국경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 잠재적 월경취업 노동에 심리적 거리를 야기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매력적인 노동기회가 존재하더라도 노동참여는 제한된다(Van Der Velde *et al.*, 2005). 또한 지역간 세제상의 차이와 거주비용의 차이, 사회보장의 차이, 언어와 타문화에 대한 적응의 차이, 고향에의 향수, 가족관계 등은 이주노동보다 거주장소와 노동장소를 왕복하는 월경취업 노동을 선호하게 만든다(European Commission, 2006).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의 기회와 이동비용은 공간적으로 균등하고 동일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이동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수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획득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노동참여는 제한된다(De Gijssels and Janssen, 2000; Mathias, 2003). 또한 토착기업은 노동력을 지역노동시장에 우선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거주장소와 노동장소의 지리적 거리

가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노동참여는 제한된다(Zenou, 2002).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시장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동시간 단축과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획득을 위해 노동시장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거주지는 지리적으로 집적된다(Piroth and Fehlen, 1999).

### 3. Grand Région 월경취업 노동발달의 지역적 배경

#### 1) 월경취업 노동의 개념

인간은 생존을 위한 생산을 위해 지역을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노동을 하였다. 그러나 민족국가가 형성된 이후, 국경의 개념이 생기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는 노동이동은 통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노동이동을 추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노동이동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경제의 세계화와 국경의 개방화로 국경을 넘는 노동이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의 국제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의 자유로운 유입을 제한하고 단기 노동계약에 의한 이주노동의 유입만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역시 1980년대 말까지 단기 노동계약에 의해 허가를 받은 노동의 유입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마스트리히트 조약(1991년)과 쉥겐협정 실행 발효(1995년), 암스테르담 조약(1998년) 등으로 회원국간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의 완전한 자유가 실현되면서 회원국간 노동이동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국경을 서로 접하고 오래 전부터 노동이동의 지역적 연계가 형성되어온 접경지역에서 국경을 넘는 노동이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경을 넘는 노동이동

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거주국가와 노동국가가 다른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과 과세의 법적 표준화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월경취업 노동의 개념과 사회보장급여의 지불 규정이 1971년 체결된 유럽경제공동체(EEC) 회원국의 사회보장제도 조정에 관한 법률(CEE n° 1408/71)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 법률은 월경취업 노동과 국내취업 노동간의 균등한 대우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여 회원국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률에 따라 월경취업 노동은 '노동자가 직업 활동을 한 회원국에서 행하고 매일 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거주하는 다른 회원국으로 되돌아오는 임금 또는 비 임금의 모든 노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경우 월경취업 노동이 이주노동과 구별되는 것은 매일 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국경을 통과하여 노동장소와 거주장소의 왕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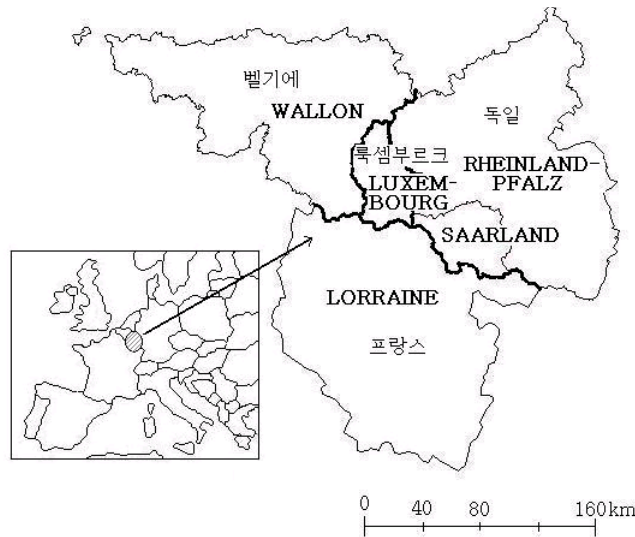
또한 이 법률은 월경취업 노동에 대해 거주국가에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월경취업 노동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해진 통일된 법률적 규정은 없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OECD의 자본 및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협정을 바탕으로 관련 회원국간 상호과세협정을 맺어 월경취업 노동에 대한 과세를 노동지역에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관련 회원국간 과세협정에 따라 과세가 거주지역에서 부과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의 경우,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벨기에·독일간의 월경취업 노동에 대한 과세는 노동지역에서 부과되고 프랑스와 벨기에 간 과세는 거주지역에서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간 월경취업 노동의 과세는 월경취업 노동의 과세 지위가 인정되는 지역을 국경에서 10-30km 이내의 양쪽 지역에 설정하여 거주지역에서 과세하고 있다(Pierini, 1997).

## 2) 월경취업 노동발달의 지역적 배경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취업 노동은 지역간 경제적 불균등에 따른 임금격차와 고용기회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사회적 접근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Grand Région은 프랑스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등 4개 국가가 접경을 이루는 6.3만km<sup>2</sup>의 방대한 지역으로 4개의 행정구역(독일 자를란트(Saarland)와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벨기에 왈롱(Wallon), 프랑스 로렌(Lorraine))과 1개의 도시국가(룩셈부르크(Luxembourg))가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문화적으로 카프카스 인종의 라틴족(로렌과 왈롱)과 게르만족(자를란트와 라인란트팔츠, 룩셈부르크), 인도유럽어족의 라틴어와 게르만어, 기독교의 로마가톨릭과 개신교가 상호공존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중세시대부터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간 활발한 계절적 노동이동이 행해져 왔으며, 20세기 초 산업혁명과 더불어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을 바탕으로 광업과 제철 및 철강산업이 발달하면서 지역간 노동이동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이에 대한 적응의 지역적 차이로 역동적인 성장지역(룩셈부르크)과 성장 정체지역(자를란트와 라인란트팔츠), 침체지역(로렌과 왈롱)이 공존하는 지역간 상호의존성이 높은 지역이다.

룩셈부르크는 면적과 경제활동인구가 Grande Région에서 약 4%에 불과하지만 가장 역동적인 성장지역으로 가장 낮은 실업률(4.1%)과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64.2%)을 보인다. 1960년대부터 전통적인 지역산업인 제철산업을 포기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통한 산업다변화 전략을 추진하여 금융산업을 바탕으로 연평균(1995-2006년) 6.8%의 높은 GDP 성장을 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확대된 노동수요를 인근지역에서 공급된 월경취업 노동으로 충당해 왔다. 독일의 자를란트 역시 Grande Région에서 차지하는 면적





	전체	Lux	Saar	Rhein	Wall	Lor
면적(%)	65,394km <sup>2</sup>	4.0	3.9	30.3	25.8	36.0
경제활동인구(%)	523만 명	4.0	9.2	39.0	27.8	20.0
취업률(%)	64.4	64.2	66.3	71.3	57.0	64.0
실업률(%)	7.6	4.1	7.3	6.0	10.5	7.7

그림 1. Grand Région의 지역적 개관(2009년)

자료: Statistiques Grande Région, 2011

(3.9%)과 경제활동인구(9.2%)는 적지만 높은 취업률(66.3%)과 낮은 실업률(7.3%)을 보인다. 1970-80년대 석탄산업과 제철공업의 위기에 불구하고 중간재 장비산업에 특화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영향을 덜 받은 지역이다. 프랑스 로렌과는 지리적으로 접해 있고 유사한 산업구조와 이중 언어의 사용으로 오래 전부터 노동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sup>3)</sup>와 제철산업의 쇠퇴로 월경취업 노동의 유입은 감소하고 월경취업 노동의 유출이 증가하였다. 라인란트팔츠는 면적(30.3%)이 넓고 경제활동인구(39.0%)가 많으며 높은 취업률(71.3%)과 낮은 실업률(6.0%)로 월경취업 노동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계산업과 화학산업,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였다.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제철 및 철강산업이 발달한 벨기에 왈롱은 넓은 면적(25.8%)과 많은 경제활동인구(27.8%)를 갖고 있지만 현대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해 가장 낮은 취업률(57.0%)과 가장 높은 실업률(10.5%)을 보인다. 로렌과는 지리적 접해 있고 동일한 문화적 특성과 유사한 산업구조로 일찍이 노동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프랑스 로렌 역시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제철산업과 철강산업이 일찍이 발달했으나 1970년대 제철산업의 위기 이후 매우 심각한 지역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이다. Grande Région에서 가장 넓은 면적(36%)과 많은

경제활동인구(20.0%)를 차지하지만 낮은 취업률(64.0%)과 높은 실업률(7.7%)을 보인다.

#### 4. Grand Région 월경취업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조절

##### 1) 월경취업 노동이동

###### (1) 월경취업 노동이동

노동이동과 거주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월경취업 노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유럽연합 15개국 월경취업 노동자 수는 2008년 현재 약 67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Commission européenne, 2009). 회원국 중 월경취업 노동을 배출하는 주요 회원국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 등 풍부한 노동력과 긴 접경지역을 가진 국가들이고, 월경취업 노동을 유입하는 주요 회원국은 스위스와 룩셈

부르크·독일·모나코·네덜란드 등 영토의 규모가 작고 노동력이 적은 국가들이다(MKW GmbH, 2001). 그리고 월경취업 노동이 활발한 접경지역은 스위스-독일-프랑스의 접경지역인 Upper Rhine과 독일-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의 접경지역인 Grand Région, 벨기에-네덜란드-독일의 접경지역인 Euregio Meuse-Rhin 등으로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들이 접해있는 접경지역들이다(Pierini, 1997).

Grande Région의 월경취업 노동자 수는 2008년 현재 약 20만 명으로 유럽연합 15개국 월경취업 노동자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 지역의 월경취업 노동은 로렌(62.0%)과 왈롱(19.1%), 라인란트팔츠(13.1%)에서 배출되고 룩셈부르크(77.0%)와 자를란트(15.2%)로 유입되고 있다. 지역간 월경취업 노동이동은 취업률 및 실업률의 지역간 격차와 지리적·사회적 근접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실업률이 낮은 룩셈부르크는 실업률이 높고 인접한 로렌(50.3%)과 왈롱(24.7%)에서 월경취업 노동을 유입하지만 인접노동시장으로의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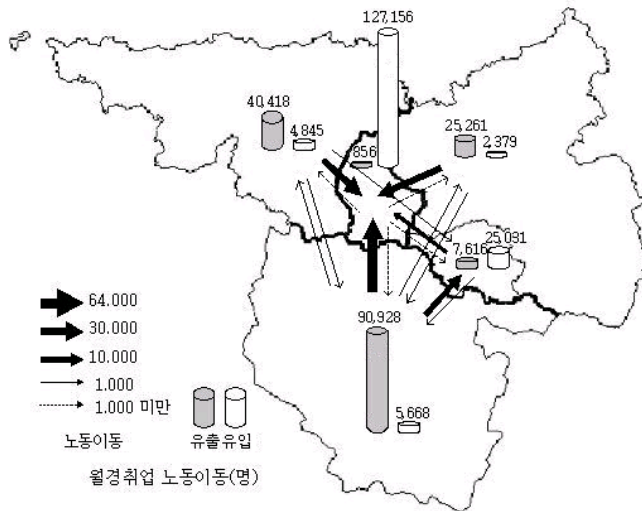


그림 2. 월경취업 노동의 지역간 흐름(2008년)

자료: IBA/OIE, 2009

(8백 명)은 매우 적다. 이와는 반대로 실업률이 높은 로렌은 인접한 룩셈부르크(70.4%)와 자를란트(22.3%)에 노동을 공급하지만 인접노동시장으로부터의 유입은 매우 적다.

그리고 실업률이 낮은 독일의 자를란트는 오래 전부터 노동이동의 지역적 연계가 형성된 로렌(81.1%)으로부터 노동을 유입하고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룩셈부르크(86.9%)로 노동을 공급한다. 라인라트팔츠 역시 유입규모(2,379명)는 작지만 인접한 로렌(90.3%)에서 노동을 유입하고 룩셈부르크(97.5%)에 노동을 공급한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벨기에 왈롱은 월경취업 노동을 룩셈부르크(77.6%)에 공급하고 로렌(92.1%)에서 유입한다. 하지만 왈롱과 자를란트와 같이 지리적으로 멀며 문화·역사적으로 유대감이 적고 국경을 두 번 통과해야 하는 지역들 간에는 높은 노동수요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노동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Grand Région의 월경취업 노동의 공간적 흐름이 지역간 경제적 여건의 차이뿐만 아니라 노동이동의 역사적 관습과 높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 (2) 월경취업 노동의 참여 동기

월경취업 노동의 공간적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경제적 여건의 차이와 지리적·역사적 배경 이외에 노동자의 월경취업 노동의 참여 동기를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과 지리적·역사적 요인은 노동이동의 요인과 방향 및 크기를 설명할 뿐, 월경취업 노동의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월경취업 노동의 참여 동기는 거주국가의 취업 기회 감소에 따른 일자리 획득과 높은 임금추구, 습득한 지식에 적합한 일자리 획득, 더 나은 노동조건 추구 등 다양하다(Wagnon, 1995). 로렌 노동자의 월경취업 노동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Belkacem *et al.*, 2006), 높은 임금추구와 일자리 획득이 가장 중요한 동기였고 이밖에 더 나

표 1. 로렌 노동자의 월경취업 노동 참여 동기

동기	노동 국가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더 많은 보수	48.9	37.5	42.2
일자리 획득	24.8	22.2	29.3
더 나은 노동조건	8.5	4.2	10.5
습득한 전문지식의 실행	6.4	5.6	5.7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해서	2.8	-	2.6
기타	8.6	30.5	9.7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Belkacem *et al.*, 2006

은 노동조건과 습득한 지식에 적합한 일자리 추구가였다. 특히 노동자의 약 절반은 보다 높은 임금추구가 월경취업 노동의 주요 동기였다.<sup>4)</sup> 이것은 월경취업 노동자가 실업상태이거나 지역노동시장에서 취업의 가능성이 낮은 노동자가 아니라 취업상태로 있는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직업전망, 더 좋은 노동조건 등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월경취업 노동의 참여 동기는 노동력의 질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룩셈부르크에서 취업한 월경취업 노동자의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Brosius, 2007), 단순노동자는 보다 나은 보수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월경취업 노동을 선택했지만 숙련된 전문직 노동자는 거주국가보다 습득한 지식에 적합한 일자리 조건과 보다 나은 직업전망, 보다 나은 노동조건이 주요 참여 동기였다. 그리고 이들은 룩셈부르크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룩셈부르크에서 일하는 월경취업 노동자의 2/3는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전에 이미 직업을 경험했거나 취업 중이었으며, 단지 1/3만이 직업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Grand Région의 월경취업 노동시장이 지역간 임금수준과 일자리 양의 차이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노동조건에 의해서도 조절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접경지역 노동시장의 조절

### (1) 접경지역 노동시장의 조절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한 노동시장의 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임금수준과 일자리 양의 차이에 따른 노동의 공간적 이동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노동조건의 차이에 따른 노동의 공간적 이동과 노동시장에서의 월경취업 노동의 역할을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은 일자리의 질과 고용조건이 내국인 노동과 월경취업 노동간 분절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이다.

Grande Région의 노동시장 역시 내국인 노동과 월경취업 노동, 이주노동간 분절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되었다. IBA의 연구에 따르면 (IBA/OIE, 2009), 룩셈부르크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노동은 공공행정(88.3%)과 전기·가스(83.8%), 보건·복지(45.8%), 교육(39.3%) 등 임금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공공분야를 담당하고 월경취업 노동은 기업관련 단순서비스업(58.8%)과 제조업(58.6%), 상업·수리업(50.8%), 금융업(50%), 건설업(49.5%) 등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민간부분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이주노동, 특히 포르투갈인과 이탈리아인은 가내 서비스업(76.7%)과 숙박·음식업(54.2%), 건설업(41.2%), 농·어업(39.6%) 등 저임금 부문을 담당하였다.

Grande Région의 노동시장은 또한 지역간 서로 다른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되었다. 로렌에서 공급된 월경취업 노동은 육체노동(62%)이 월등히 많고 관리직(12%)과 중간간부 및 기술직 노동(15%)은 적었다. 이외는 달리 룩셈부르크에서 공급된 노동은 고위간부 및 전문직 노동(58%)이 현저히 많은 반면에 육체노동(19%)과 관리직 노동(5%)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자를란트와 라인라트팔츠는 중간간부 및 기술직 노동(23%와 21%)의 공급이 많았고, 왈롱은 고위간부 및 전문직 노동(39%)의 공급이 많았다.

그리고 지역간 서로 다른 노동공급은 노동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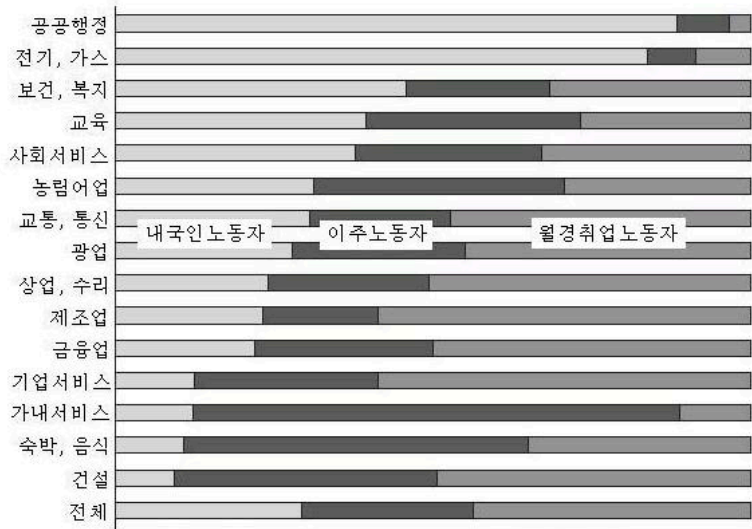


그림 3. 룩셈부르크 노동자의 출신별 노동 분야

자료: IBA/OIE, 2009

표 2. 유출지역별 월경취업 노동분야(% , 2009년)

	고위간부, 전문직	중간간부, 기술직	관리직	육체노동자	전체
Lux	58	10	5	19	100
Saar	23	23	12	37	100
Rhein	22	21	17	37	100
Wall	39	11	15	34	100
Lor	18	15	12	62	100
전체	25	16	14	45	100

자료: Statistiques Grande Région,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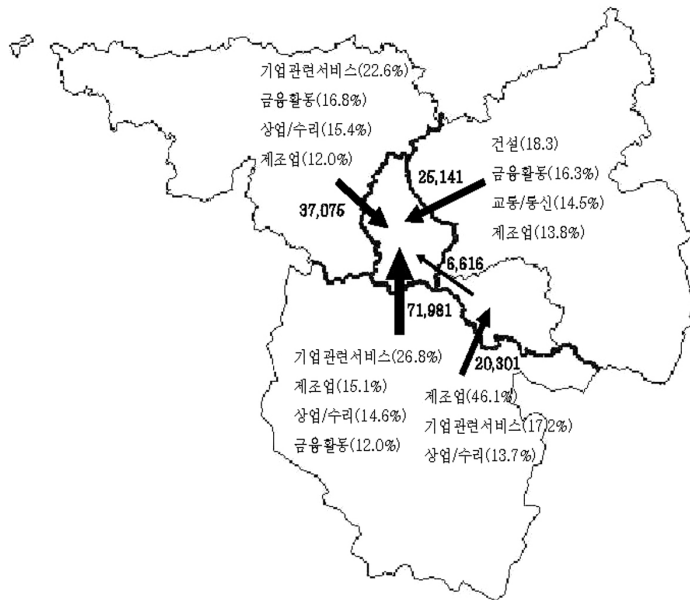


그림 4. 유입지역별 월경취업 노동 분야(2008년)

주: Rheinland-Pfalz의 월경취업 노동은 Saarland의 월경취업 노동을 포함

자료: IBA/OIE, 2009

가 많은 노동시장에 공급되어 노동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동공급 지역의 유희노동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내국인 노동의 공급이 매우 적은 룩셈부르크는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1985-2006년) 증가한 노동수요를 월경취업 노동과 이주노동으로 충당해 왔다. 월경취업 노동은 1990년대 중반 이주노동을 추월하고 2000년대 초부터 내국인 노동을 추월하였다. 그리고 2006

년 현재 월경취업 노동은 룩셈부르크 전체 노동의 약 41.3%를 차지하며, 2005-2006년 창출된 고용의 약 2/3가 월경취업 노동에 의해 충당되었다(STATEC, 2008). 룩셈부르크의 노동수요는 주로 기업관련 단순서비스업(3.1만)과 금융업(1.7만), 교통·통신업(1.4만), 건설업(1.2만), 보건·사회복지(1.2만) 분야에서 창출되었으며 창출된 노동수요는 지역간 차별화된 월경취업 노동공급

에 의해 충당되었다. 즉 로렌에서 공급된 단순육체노동은 기업관련 단순서비스업(26.8%)과 제조업(15.1%), 상업 및 수리업(14.6%) 분야에 충당되었고, 알롱에서 공급된 노동은 기업관련 단순서비스업(22.6%)과 금융업(16.8%), 상업 및 수리업(15.4%) 분야에서 수요 되었다. 그리고 자를란트와 라인라트팔츠에서 공급된 중간간부 및 기술직 노동은 건설기술에 대한 높은 명성과 독일계 은행의 입지로 건설업(18.3%)과 금융업(16.3%), 교통·통신업(14.5%) 분야에 충당되었다(STATEC, 2008).

독일 자를란트의 노동수요는 대부분 인접한 로렌(81.1%)의 노동공급에 의해 해결해 왔다. 로렌의 월경취업 노동은 자를란트의 전체 노동분포(제조업 28.8%, 상업·수리 14.9%, 기업관련 단순서비스 13.1%)와 비교하여 저임금의 제조업(46.1%)과 기업관련 단순서비스업(17.2%)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였다. 이것은 자를란트의 노동시장 역시 룩셈부르크의 노동시장과 마찬가지로 내국인 노동과 월경취업 노동간 일자리가 분절되어 있고, 노동시장은 분절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월경취업 노동의 고용형태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일자리의 질에 따라 내

국인 노동과 월경취업 노동 및 이주노동간 분절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될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고용형태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Grande Région의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저임금 노동부족을 노동의 유연성이 가능한 시간제 고용과 임시직 고용을 통해 조절되었다. 월경취업 노동은 내국인 노동에 비해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이 많으며, 특히 월경취업 노동의 수요가 많은 룩셈부르크와 자를란트 노동시장에서 월경취업 노동의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비율은 이주노동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다. 이것은 저임금 노동에 고용된 월경취업 노동이 시간제 및 임시직의 고용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룩셈부르크에서 취업한 월경취업 노동의 1/3 이상이 시간제 및 임시직에 고용되었으며, 월경취업 노동의 시간제(25.0%)와 임시직(10.0%) 고용비율은 이주노동의 시간제(17.0%)와 임시직(4.0%)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고용은 지난 5년간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룩셈부르크 노동시장에서 월경취업 노동의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이 월등히 많은 것은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고용주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룩셈부르크가 다른 인접국가에 비해 사회적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접국가에 입지한 외국기업들이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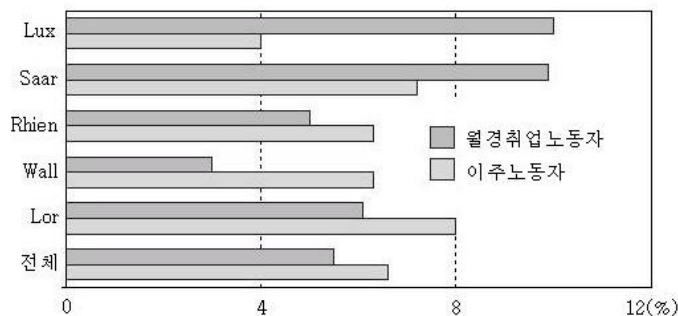


그림 5. 지역별 월경취업 노동의 임시직 고용비율(2009년)

자료: Statistiques Grande Région, 2011

임시직 노동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5)</sup> 자를란트 역시 월경취업 노동의 임시직(9.9%) 고용비율은 이주노동(7.2%)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월경취업 노동의 수요가 적은 로렌과 알롱, 라인라트팔츠의 월경취업 노동의 임시직 고용비율은 이주노동에 비해 낮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Grande Région의 월경취업 노동시장이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한 고용형태인 임시직 및 시간제 고용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비정형 월경취업 노동과 거주지의 변화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월경취업 노동자의 국경을 넘는 거주지 이전과 국경 인접지역에서의 거주지의 지리적 집적의 증가이다. 특히 1990년대 회원국간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완전히 실현된 이후, 노동시장에서 분리된 거주지를 국경 넘어 인접국가로 이전하고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비정형적인 월경취업 노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룩셈부르크에서 일하는 로렌 월경취업 노동의 약 1%가 룩셈부르크 국적이며, 독일의 자를란트에서 취업한 로렌 월경취업 노동의 약 3%가 독일 국적이었다(STATEC, 2008).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분리된 거주지가 국경을 넘어 인접국가로 이전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과 과세의 지역적 차이가 근본적인 요인이지만, 더 나은 삶의 질과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비경제적인 요인과의 관련이 있다(Belkacem *et al.*, 2006). 즉 노동은 인 근국가에 비해 과세가 낮은 룩셈부르크와 자를란트에서 유지하고, 노동에서 분리된 거주지는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넓은 녹지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로렌으로 이전하였다.

국경을 넘지 않는 월경취업 노동의 거주지는 거주장소와 노동장소간의 이동시간 단축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획득 그리고 과세혜택을 위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을 따라 집적되었다. 룩



그림 6. 월경취업 노동의 거주지역

셈부르크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IBA/OIE, 2009), 1995-2004년 기간 동안 룩셈부르크에서 일하는 월경취업 노동자의 4%가 그들의 거주지를 거주장소와 노동장소간의 이동시간 단축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해 국경 가까이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로렌의 월경취업 노동자의 10명 중 9명은 국경으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의 도로 축을 따라 거주하였다. 이것은 Grande Région의 월경취업 노동이 지역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경과 접한 좁은 지역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5. 요약 및 결론: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요소로서 월경취업 노동의 문제점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의 접경지역에서 거주지 이전 없이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국경을 통과하여 노동장소와 거주장소를 왕복하는 월경취업 노동은 산업환경의 변

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의 접경지역인 Grande Région에서의 월경취업 노동이동과 노동이동에 의한 노동시장 조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경취업 노동의 지역간 이동은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임금수준과 고용기회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문화·역사적 배경, 비슷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적 연계와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욕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월경취업 노동이동은 접경지역 노동시장에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대응의 지역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양적·질적 노동력의 잉여와 부족문제를 조절해 왔다. 즉 월경취업 노동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유휴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활동이 출현하는 지역의 노동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셋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내국인 노동과 월경취업 노동간에 일자리가 분절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은 지역간 분절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한 고용형태인 시간제 고용과 임시직 고용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의 접경지역에서 월경취업 노동은 노동지역에서 분리한 거주지를 인접국가로 이전하고 기존의 노동지역에 참여하는 비정형적인 월경취업 노동이 증가하였다. 또한 월경취업 노동자의 거주지는 이동시간 단축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을 위해 국경과 접한 지역의 도로축을 따라 집적되었다.

그러나 접경지역 노동시장의 조절요소로서 월경취업 노동이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월경취업 노동의 유출지역이 숙련된 전문노동력의 유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월경취업 노동은 노동자가 거주지의 이전 없이 노

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잠재적 위기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욕구가 강한 숙련된 전문노동력의 유출은 지역산업의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둘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이 침체할 경우 수많은 월경취업 노동의 귀환에 지역노동시장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월경취업 노동은 지역의 노동수요 대신에 인접국가의 노동수요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월경취업 노동의 대규모 귀환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월경취업 노동의 수요지역이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공급의 부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의 연령층에 접어들면서 월경취업 노동에 의존했던 노동시장이 노동공급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월경취업 노동자 거주지의 지리적 집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환경오염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월경취업 노동은 노동력을 지역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역동성에 기여를 하지만, 거주지의 지리적 집적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노동이동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장기여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남·북한간의 국경기능이 소멸되어 접경지역에서 노동이동 및 거주이동이 자유로울 때, 남·북한간 접경지역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월경취업 노동이동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주

- 1) 유럽연합은 창설 초기(EEC, 1957년)부터 상품과 자본,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와 더불어 노동이동의 자유화를 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해 왔다. 마스트리히트 조약(1991년)으로 단일공동시장이 완성되면서 회원국간 완



전한 노동이동과 거주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쉥겐협정의 실행 발효(1995년)로 회원국간 국경에서 사람 및 물자이동에 대한 검문·검색이 폐지됨으로서 완전한 노동(사람)이동의 자유가 실현되었다. 암스테르담 조약(1998년)의 체결로 회원국 노동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구직할 수 있는 권리, 취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취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다른 회원국에 잔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 2) 유럽연합 15개국은 유럽연합 27개국 가운데 최근 가입한 중·동부유럽 12개국을 제외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영국·아일랜드·덴마크·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를 의미한다.
- 3) 독일정부는 2007년 달러 하락과 가격경쟁력의 하락, 환경적 문제 등으로 2018년까지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석탄산업의 합리화로 일자리는 2012년까지 2만 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4) 국가별 평균임금은 노동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고 프랑스가 가장 낮다.

국가간 노동분야별 평균임금(2004년, 유로/월)

		단순노동자	숙련노동자	중간 간부	관리자
숙박업	독일	1,383	1,580	2,149	2,841
	프랑스	1,003	-	1,791	2,096
	룩셈부르크	1,526	1,897	2,223	2,940
건축업	독일	-	2,187	-	-
	프랑스	-	1,330	-	-
	룩셈부르크	-	2,373	-	-
간호사	독일	-	3,019	-	-
	프랑스	-	2,661	-	-
	룩셈부르크	-	2,758	-	-

자료: OIE, 2005

- 5) 고용주의 피고용자에 대한 의무공제 과세(세금과 사회보장 납입금 등) 부담률은 룩셈부르크 34%, 프랑스 45%, 독일 52%, 벨기에 57%로 룩셈부르크에 입지한 기업의 부담률이 가장 낮다.

## 참고문헌

김부성, 2006, “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 상호작용,” *대한지리학회지* 40(1), pp.22-38.

문남철, 2002,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개발 전략,” *대한지리학회지* 37(4), pp.442-459.

문남철, 2007, “EU 확대와 노동 이동,”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pp.182-196.

이현주, 2002, “유럽공동체의 개방공간상에서 보완지역간의 초국경적 통합-프랑스 접경지역을 사례로-,” *지리학 논총* 40, pp.37-60.

Belkacem, R., Borsenberger, M. and Pigeron-Piroth, I., 2006, “Les travailleurs frontaliers lorrains,” *Travail et Emploi* 106, pp.65-77.

Brosius, J., 2007, “La recherche d’emploi des frontières au Luxembourg,” *Tiré de: CEPS/INSTEAD: Population et Emploi* 26.

Clement, F., 2004, “Le travail intérimaire au Luxembourg: aspects transfrontaliers,” *Les Cahiers transfrontaliers de'EURES* 2, pp.29-35.

Commission européenne, 2009, *Emploi et Affaires sociales*.

De Gijssel, P. and Janssen, M., 2000, “Understanding the Dutch-German Cross-Border labour market: Are highly educated workers unwilling to move?”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0(1), pp.61-77.

European Commission, 2006, *Europeans and mobility: first results of an EU-wide survey*.

Harris, J. R. and Todaro, M. P.,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0, pp.126-142.

Harrison, B. and Sum, A., 1979, “The Theory of Dual or Segmented Labor Markets,” *Journal of Economic Issues* 13, pp.687-706.

IBA/OIE, 2009, “Situation du marché de l’emploi dans la Grande Région.” *Observatoire interrégional du marché de l’emploi*.

Massey, D. S., Arango, J., Hugo G. and Kouaouci, A.,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

- 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pp.431-466.
- MKW GmbH, 2001, *Scientific Report on the mobility of cross-border workers within the EEA*, Final Report commission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 Mathias, J., 2003, “Le profil du frontalier : entre choix et opportunités,” *Economie Lorraine* 229, pp.6-14.
- Pierini, F., 1997, *Les Travailleurs frontaliers dans l’Union européenne*, Parlement Européen.
- Piroth, I. and Fehlen, F., 1999, “Mobilité résidentielle, mobilité sectorielle et autres changements dans l’emploi entre 1994 et 1997,” *Bulletin du STATEC* 1, pp.1-42.
- STATEC, 2008, “Les dépenses des salariés frontaliers au Luxembourg en 2007,” *Bulletin du STATEC* 1.
- Statistiques Grande Région, 2011, *Qui sont les travailleurs frontaliers de la Grande Région? - Caractéristiques et déterminants de la mobilité professionnelle*.
- Tassinopoulos, A. and Werner, H., 1998, “Mobility and migration of labour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ir specific implications for young people,” *CEDEFOP Document*, Luxembourg: European Commission.
- Van Der Velde, M., Janssen, M. and Van Houtum, H., 2005, Job Mobility in the Dutch-German Regional Labour Market: The Threshold of Indifference, in Vilsteren, G. van. & Wever, E., 2005, *Borders and economic behaviour in Europe. A geographical approach*, Assen: Van Gorcum, pp.77-95.
- Wagnon, M-D., 1995, “Travail frontalier-Motivations et Mobilité-Conditions de travail,” *Emplois stratégiques* 139, pp.14-17.
- Wissen, L. V. and Visser, H., 1998, An Explanatory Analysis of International Migration Flows within the European Economic Area, in Gorter, C., Nijkamp, P. and Poot, J.(eds.), 1998, *Crossing borders: Regional and urba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Aldershot: Asgate, pp.337-357.
- Zenou, Y., 2002, “How Do Firms Redline Workers?,” *Journal of Urban Economics* 52(3), pp.391-408.
- <http://www.granderegion.net>
- 교신: 문남철,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전화: 062-530-2680, 이메일: mnc83@hanmail.net
- Correspondence: Nam-Cheol Moon,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el: 82-62-530-2680, E-mail: mnc83@hanmail.net
- 최초투고일 2013년 4월 10일  
수정일 2013년 5월 1일  
최종접수일 2013년 5월 7일